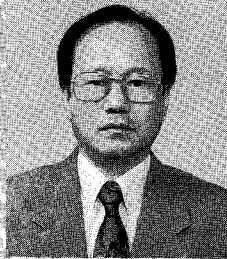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새천년 맞이 양계인의 새 희망



김 재 학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 의학박사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경진년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한해로서 인류에게 값진 한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저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여 새희망과 기원을 빌고 세계 곳곳에서는 각양 각색의 축제가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못다한 지난 천년 마지막 한해를 아쉬움 속에 흘려보내고 새천년 새해를 맞아 보다 나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 나라와 사회의 복지 안녕을 위해 그리고 저마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에서일 것이다. 그러면 새천년 새해를 맞는 우리 양계인들의 바람과 희망은 무엇일까?

첫째, 닭 질병으로부터 안전이다.

국내에는 많은 닭 질병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들 질병으로부터 모두 안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특히 그 피해가 큰 질병을 들자면 뉴캐슬병, 살모넬라 감염증(가금티푸스, 추백리 등), 가금인플루엔자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뉴캐슬병을 박멸하고, 살모넬라 감염증인 추백리는 종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색하여 이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1992년부터 국내 최초 보고된 가금티푸스의 발생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질병이 전파되지 않게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1996년부터 발생 보고된 가금인플루엔자도 약독형 바이러스이지만 점점 국내에 확산 전파되어 산란저하, 폐사 등으로 양계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질병이므로 우리 양계인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철저한 방역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뿐만 아니라 강독형 가끔 인푸루엔자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양계산업에서 고질적인 상기질병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근절된 상태의 질병들이다.

새천년을 맞아 우리 양계인 모두가 합심하여 이들 질병의 퇴치에 선봉이 되어주길 바란다.



둘째, 양계산물 가격의 안정적 유지이다.

1999년 지난 한해동안 국내 양계인들 특히 채란업계는 계란값 하락으로 많은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온 한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양계산물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수요간에 균형있는 유지와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서로 보호받는 안정적 가격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신지식, 신기술 도입으로 경영혁신과 안전양계산물 생산이다.

새로운 한해 새천년에는 우리 양계인 모두가 신사고와 신지식의 바탕위에 개혁의 의지로 새로운 기술과 경영혁신으로, 값이 싸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양계산물을 생산, 공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국제경쟁력의 제고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국내 양계산업도 이에 발맞추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양계산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세계 최우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체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또 많은 바람들……. 이만 마음속으로 접어두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한해를 맞아 양계인 모두가 희망차고 보다 발전되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 양계산업이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우리 양계인 모두가 항상 활짝 웃음면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바람나는 새천년 출발의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양계**